

BOX 2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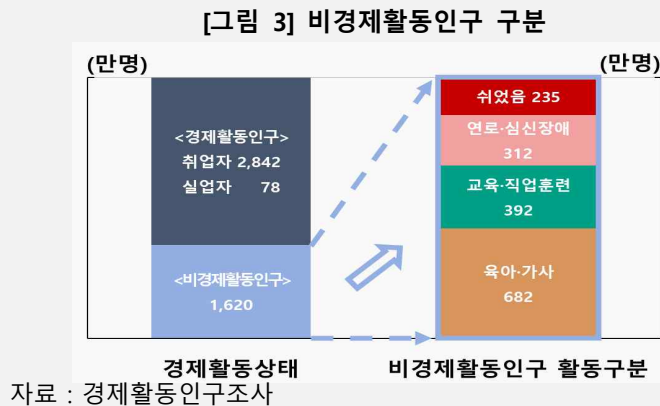
I. 청년층 “쉬었음” 증가

최근 주요 고용지표들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1>을 보면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고용 개선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있다. 한편 실업률 등 노동시장 슬랙 지표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그림 2>

고용지표는 양호하나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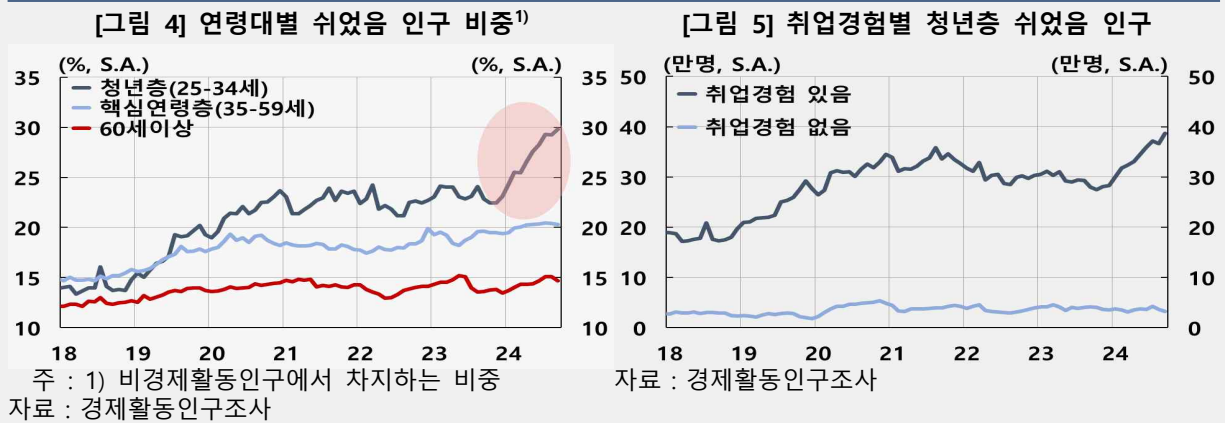
쉬었음 인구⁹⁸⁾ 2023년 기준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14.5%^{235만명}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을 나타낸다.<그림 3>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해 보면 육아가사, 교육·직업훈련, 연로·심신장애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쉬었음이다.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쉬었음 인구가 팬데믹 당시 등락을 보인 이후 올해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98)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된 활동에 따라 육아가사, 교육기관 통학, 취업·진학 준비, 연로·심신장애, 쉬었음 등으로 분류한다.

최근 나타난 쉬었음 증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⁹⁹⁾. <그림 4>을 보면 고령층^{60세 이상}과 핵심연령층^{35~59세}의 쉬었음 비중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청년층 쉬었음 비중은 팬데믹 당시 늘어난 이후 올해 초부터 다시 큰 폭 상승하였다^{23.4/4 22.7% → 24.3/4 29.5%}. 또한 청년층 쉬었음을 취업경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근 늘어난 쉬었음 증가는 대부분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이후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청년층 쉬었음 증가 배경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논의한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쉬었음 인구 증가를 주도



II. 청년층 쉬었음 증가 배경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¹⁰⁰⁾별로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경우^{자발적 쉬었음}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경우^{비자발적 쉬었음}도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그림 6> 또한 청년층에서는 자발적으로 쉬는 인구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핵심연령층의 경우 팬데믹 당시 비자발적 쉬었음이 크게 늘어난 경우를 제외하면 최근까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그림 7>

99) 본고에서는 청년층(25~34세)과 저연령층(15~24세)를 구분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층(2023년 경제활동참가율: 79%)에 비해, 저연령층(30%)은 학업·취업 준비로 경제활동 경험이 적으며 쉬었음 인구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00)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 조사하고 있으므로, 쉬었음 증가 배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 중에서 이직 1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57%(2023년 기준)이다.

청년층 비자발적 쉬었음이 최근 들어 증가

[그림 6] 청년층 이직사유별 쉬었음¹⁾ 인구



주 : 1) 녹색 음영은 팬데믹 기간을 나타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7] 핵심연령층 이직사유별 쉬었음¹⁾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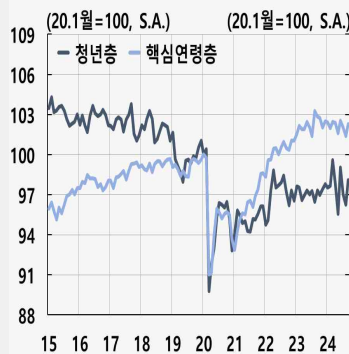
주 : 1) 녹색 음영은 팬데믹 기간을 나타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 자발적 쉬었음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을 보면 청년층 고용의 질은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¹⁰¹⁾ 이는 고용의 질이 팬데믹 이전보다 좋아진 핵심연령층과 상반된 모습이다. 한편 청년층은 핵심연령층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 선택의 기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9>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는 비중도 청년층^{3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그림 10> 결국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⁰²⁾

청년층 고용의 질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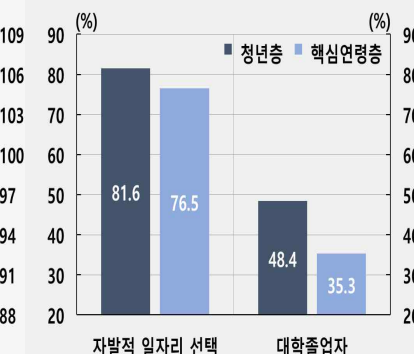
청년층의 높은 일자리 선택 기준 등이 자발적 쉬었음을 늘리는 요인

[그림 8] 청년·핵심연령층 고용의 질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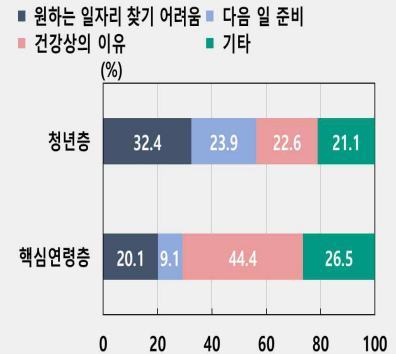
주 : 1) 종사상지위의 안정성, 근로시간 부족(비자발적인 36시간 미만 근무 등), 실직위험 등 세 가지 기준을 평가하여 산출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그림 9] 자발적 일자리 선택, 대학졸업자 비율¹⁾²⁾



주 : 1) 2015~23년 평균
2) 4년제 대학 기준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그림 10] 쉬었음 사유¹⁾



주 : 1) 2023년 기준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101)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근로시간 부족 여부가 동 지표 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102) 청년층의 자발적 쉬었음 증가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외에도 기업의 경력직 선호, 여가 선호 증가 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청년층 하향취업(under-employment) 현황

하향취업은 취업자의 학력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¹⁰³⁾. 이러한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는 학력 과잉에 따른 인적자본 활용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고용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일자리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학력 일자리 증가(수요)가 대졸자 증가(공급)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청년층의 하향취업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며, 최근에는 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1] 대학졸업자, 적정 일자리수¹⁾



주: 1)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직 취업자수

[그림 2] 청년층 하향취업률¹⁾



주: 1) 대졸 취업자 중 적정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비율

이에 비해 비자발적 쉬었음 인구는 일자리 미스매치, 기업의 경력직 및 수시 채용 선호 등 구조적 요인 외에 경기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⁰⁴⁾. <그림 6>를 보면 팬데믹 발생 당시 청년층의 비자발적 쉬었음이 큰 폭 증가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가파른 모습인데, 이는 최근 청년층 고용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과 관련 있다. <그림 11>를 보면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핵심 연령층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초 감소 전환하였다.

금년 들어 청년층 고용상황이 악화

[그림 11] 청년·핵심연령층 고용률 변화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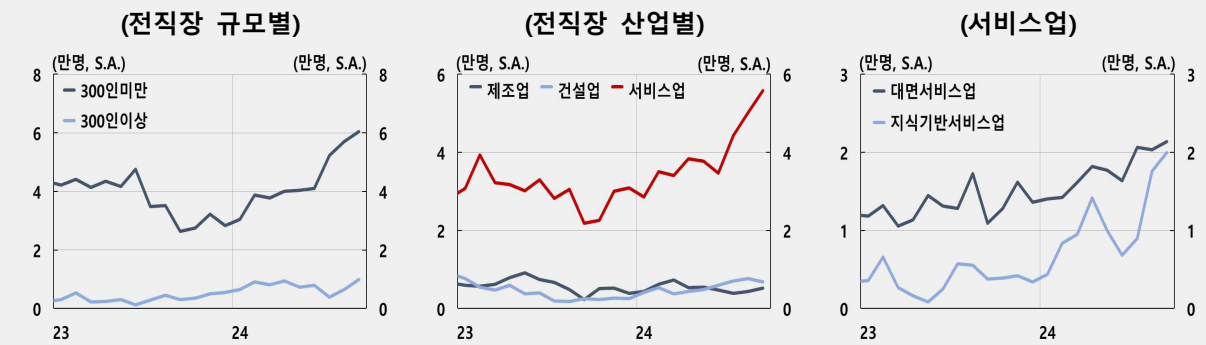
103) 예를 들어 대졸자가 대졸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매장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하향취업에 해당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오삼일·강달현, 2019)을 참고하기 바란다.

104) 이는 일반적으로 직장의 휴·폐업, 정리해고, 임시직 계약 종료 등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경기침체기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비자발적 사유로 쉬고 있는 청년층은 주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¹⁰⁵⁾ <그림 12>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의한 노동시장 이탈이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주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비자발적 쉬었음 인구는 이전에 중소기업, 대면서비스업에 주로 종사

[그림 12] 특성별 청년층 비자발적 쉬었음¹⁾



주 : 1) 이직한지 1년 미만인 쉬었음 인구 대상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III. 관련 시사점

최근 나타난 청년층 쉬었음 증가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3.3/4분기 33.6만명에서 24.3/4분기 42.2만명으로 지난 1년간 25.4% 증가하였는데, 이중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 쉬었음의 기여율은 각각 28.2%, 71.8%¹⁰⁶⁾이다.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이탈하거나 니트(NEET¹⁰⁷⁾) 축화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층 단기 쉬었음(이직 1년 미만) 증가는 장기 쉬었음(이직 1년 이상) 증가로 이어진다¹⁰⁸⁾. <그림 13> 이는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근로를 희망하는(wanting a job) 비율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실제 취업률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희망 비율이 90% 수준이나, 1년이 지날 경우 동 수치는 50% 내외로 하락한다. 이로 인해 쉬었음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할 확률 5.6%, 23년 기준은 실업 상태^{26.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청년층 쉬었음 증가는 향후 노동공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¹⁰⁹⁾이 필요하다.

105)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IT 관련 업종에서도 청년층의 비자발적 쉬었음이 늘어나고 있다.

106) 동 기여율은 이직 기간 1년 이내인 쉬었음 인구에 한정하여 산출하였다.

107)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08) 장기 쉬었음은 단기 쉬었음에 비해 3분기 후행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109) 정부는 2024년 5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참가, 경력단절 예방, 전직지원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쉬었음 증가는
장기 쉬었음 증가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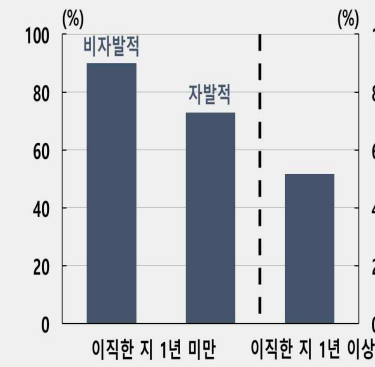
쉬었음 인구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고,
장기화될수록 근로의욕이 감소

[그림 13] 이직기간별
청년층 쉬었음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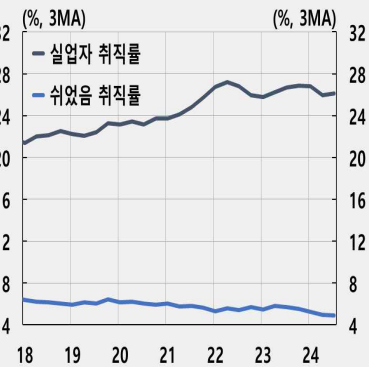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4] 청년층 향후
1년 이내 근로희망률¹⁾



주 : 1) 2023년 기준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5] 실업자, 쉬었음 취직률¹⁾



주 : 1) 한 달 이내에 취직에 성공할 확률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향후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면서 구직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 과정에서 청년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 쉬었음 인구 42.2만명^{24.3분기 기준} 중 60.8%인 25.6만명¹¹⁰⁾은 향후 1년 내 구직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구직자이다. 따라서 향후 청년 실업자와 쉬었음 인구 사이의 노동이동^{worker flow}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나타난 청년층 고용상황 둔화와 쉬었음 증가가 전체 노동시장의 둔화로 이어질지 향후 고용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110) 청년층 쉬었음 중 1년 이내 근로를 희망하는 인구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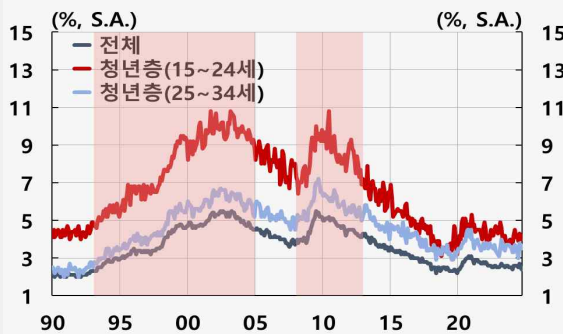
<참고 2> 일본의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

일본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제1차(1993~2005년, 거품경제 붕괴), 제2차(2008~13년, 글로벌 금융위기) 취직빙하기를 지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노동관련 지표들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되었다.^[그림 1]

청년 고용시장 악화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¹¹¹⁾로 이어졌으며, 이는 노동시장이 회복된 현재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차 취직빙하기에 고용시장 악화가 이어지면서 청년 니트족이 약 20만명 정도 증가(25~34세 기준, 1996년 대비)하였다¹¹²⁾. 이후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일본 청년 실업률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나, 청년 니트족의 경우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지 못하고 니트족으로 머무르면서 장기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00년대 초반 나타난 청년 니트족 증가는 시차를 두고 핵심연령 니트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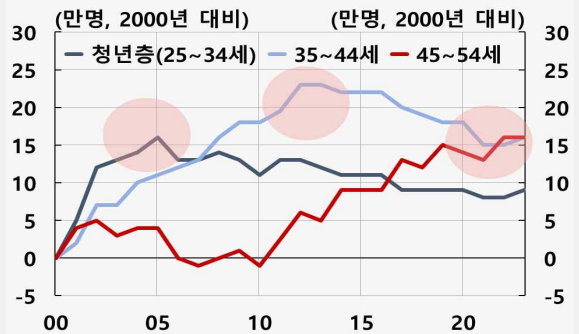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비영리단체)과 협력하여 니트족과 같은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를 대상으로 직업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원 대상의 연령이 15세부터 35세 미만까지로 제한되었으나, 핵심연령 니트족이 증가하면서 지원 대상의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하였다.

[그림 1] 일본 실업률¹¹²⁾



주: 1) 청년층은 25~34세 기준
2) 붉은색 음영은 취직빙하기를 나타냄
자료: 일본 통계청

[그림 2] 일본 연령별 니트(NEET)족 증가¹¹²⁾



주: 1) 2000년 대비 연령별 니트족 증가
2) 2000년 이전 자료는 미공표
자료: 후생노동성, 일본 통계청

111) 일본의 기업들은 '장기적인 교육훈련 등으로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가진 사업장이 많은 편이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육성대상으로서 신규 졸업자들을 선호하며, 졸업 당시 정규직 취업에 실패한 인원들을 육성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차 취직빙하기에 졸업했던 청년층에서 비정규직·프리터·니트족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쉽게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스기 네이코, 2018, 한국노동연구원).

112) 2차 취직빙하기에 청년층 니트족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 수가 증가한 점, 1차 취직빙하기 이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층 취업지원 정책이 시행된 점, 1차보다 침체기간이 짧았던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